



HEADLINE NEWS

人事局 간부 공채 실시 (上海市)

중국 상해시는, 처음으로 실시한 「上海人事局 國際交流合作處(留學經驗者工作處)」의 副處長 공개채용 전형에 12명의 해외유학 경험자가 응시했다고 밝혔다. 市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국 간부의 응시자격은 ‘해외유학 경험자’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특히, 유창한 영어회화능력 소지자)’ ‘5년 이상 2개 분야의 관리직 경력자’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소지자’ ‘35세 미만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번 응시자 12명은 석사 7명, 박사 2명, 공산당원 6명, 민주당파 소속 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대개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市는 밝혔다. 또한 市는 이들 중 7명이 대학 학부주임·연구개발 부주임·부처장 등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www.peopledaily.co.jp/j/2000/09/18/newfiles/a1160.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최첨단 도시관리기법 「지역정보시스템」 개발 (필라델피아)

[도시환경]

- ②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Air 2000」프로그램 시행 (밴쿠버)
- ③ 녹지보호·관리 위한 「녹지정보시스템」 구축 (베를린)
- ④ 교통사고보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 (런던)
- ⑤ ‘빌딩녹화사업’으로 열섬현상 억제 추진(동경/ 오사카)
- ⑥ 쓰레기분리수거 어린이교육용 인터넷게임 개발 (프랑스 : 불로뉴 빌랑쿠르시)

[도시교통]

- ⑦ 「램프미터기」 소등테스트 시행 (미네소타주 트윈시티)
- ⑧ 승용차와 대형트럭 제한속도 동일적용 유지 (아리조나주)
- ⑨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징수 (오사카)

[사회복지]

- ⑩ 핸드폰 재활용 운동 전개 (뉴욕)

[행정재정]

- ⑪ 공무원 대상 「反부정부패 전략」추진 영국 글래스고우시)
- ⑫ 시민의식·귀속감 제고 위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홍콩)
- ⑬ 기술분야 지적재산권거래소 설립 (중국 : 成都市)

① 침침단 도시관리기법 「지역정보시스템」 개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市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지역 쇠락을 막기 위한 하이테크 도시 관리기법 개발을 위해 지역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최근 「지역정보시스템(NIS : Neighborhood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市의 유관 부서와 지역개발업자에게 市 전역의 토지, 건물 등 재산권 관련자료를 분석해 지도화하는 침침단기법을 제공한다. 앞으로 市는 재개발 사업시 재산권 관련 정보 분석 등의 강력한 도구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업체는 대상지역의 소유권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및 폐기대상 건물 등을 단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newweb.phila.gov/philagov/philagov.nsf/URLDocs/MapProp/?OpenDocument)

②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Air 2000」 프로그램 시행 (밴쿠버)

밴쿠버市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Air 2000」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ir 2000」 프로그램은 대기오염 방지활동을 펼치는 단체나 모임을 지원하고,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교육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市는 프로그램 시행시 관련기관 및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며, 프로그램의 성과는 시행 후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도로 평가할 계획이다.

(www.gvrd.bc.ca/services/air/air2000/air2000.html)

③ 녹지보호·관리 위한 「녹지정보시스템」 구축 (베를린)

베를린市에서는 市 도시개발국의 도시조성 및 도시녹지 부서와 자치행정구의 녹지관련 부서의 녹지보호 및 관리용 전산시스템인 「녹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땅의 여신’이란 뜻을 가진 「가이아(Gaia)」 프로그램은 구의 녹지관련 부서에서 이용되며, 여기서 처리된 자료들은 市 환경보호국의 데이터뱅크에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전체 도시계획이나 기본원칙 설정 관련 업무에 활용된다. 앞으로 베를린市의 자치행정구는 「가이아」를 통해 구의 녹지, 수목, 놀이터 관리대장, 녹지관리비용 계산, 수목가치 평가 등과 같은 녹지보호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www.sensut.berlin.de/sensut/umwelt/gris/gaia.shtml)

④ 교통사고보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 (런던)

런던市 건강위원회는 10월 12일 교통기관의 배출가스로 의한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98년에 런던에서 교통사고로 226명이 사망한데 반해 교통기관 배출가스로 인한 사망자는 380명으로 나타났으며, 총 사망자 중 1% 이상이 교통사고와 자동차 배출가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www.london.gov.uk/news/178-1110.htm)

5 '빌딩녹화사업' 으로 열섬현상 억제 추진 (동경 / 오사카)

東京都와 오사카市는 열섬현상 억제대책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들은 우선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빌딩 옥상과 벽면의 녹화사업을 실시해 기온의 저하 효과를 분석해보고, 옥상의 일정 면적에 녹화사업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또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및 환경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넝쿨 또는 분재를 이용한 녹화 및 주차장의 잔디녹화 실시, 투수성 높은 포장도로 도입, 열 흡수를 낮추는 흰색 계통의 도색 실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東京都 의회 자연환경보전위원회는 「都자연보호조례」를 28년만에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열섬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설 잔토(폐기물)에 의한 매립을 규제하고, 야생동물 보호종과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며, 야생동물 포획 및 살상을 금지시키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 조례가 12월 초 都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ww.mainichi.co.jp/eye/feature/details/science/Environment/200008/22-1.html)

(www.mainichi.co.jp/eye/feature/details/science/Environment/200008/25-2.html)

6 쓰레기분리수거 어린이교육용 인터넷게임 개발 (프랑스 : 불로뉴 빌랑쿠르市)

파리 근교 소재 불로뉴 빌랑쿠르市는 어린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 둘, 셋, 휴지통으로」라는 인터넷게임을 개발했다. 3세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인터넷게임은 유명만화 주인공을 등장시켜 부엌과 화장실의 쓰레기를 적합한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점수를 얻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市는 어린이에 대한 이런 분리수거 교육은 부모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newsfrance.org/affiche.asp?Doc_id=201925)

7 「램프미터기」 소등테스트 시행 (미네소타주 트윈시티)

미네소타주 교통국은 교통혼잡과 통행시간, 교통안전에 대한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 10월 16일 오전부터 4~6주 동안 트윈시티 대도시 지역에 있는 모든 「램프미터기(430개)」를 소등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 테스트는 교통의 흐름과 안전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되며, 적색등과 녹색등으로 구분해 교통소통을 조절하던 평상시와는 달리 테스트 기간 중에는 항상 황색등만을 켜 놓게 된다. 또한 평상시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경찰을 증원배치하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급증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테스트를 조기에 중단할 방침이다.

(dailynews.yahoo.com/vcc0/20001015/lo/225889_1.html)

8 승용차와 대형트럭 제한속도 동일적용 유지 (아리조나주)

아리조나주 입법부는 도시간 지방도로에서 대형트럭의 제한속도를 승용차의 제한속도와 동일한 시속 75마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주 교통부가 해당도로의 선형 및 기하구조, 교통량, 교통사고 자료, 실제 운행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조사한 결과 승용차와 대형트럭이 다른 속도로 주행할 경우 잠재적 상충요소가 크고, 결과적으로 승용차와 대형트럭간에 교통사고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 입법부가 제한속도의 현행 유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주 입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형트럭의 제한속도를 승용차보다 강화한 시속 65마일로 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 및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이를 「주교통법(HB 2256)」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ww.dot.state.az.us/news/release.htm)

9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징수 (오사카)

일본 오사카 대도시권에서는 '56년에 제정된 「도로건설특별법」에 따라 모든 도시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반도로는 휘발유세와 기타 일반 재정에서 건설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전액 차용자금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통행료는 공시된 통행료 징수기간(현재 40년 이하) 동안 건설비, 유지관리비, 차용액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요금시스템은 한신고속도로의 경우 3개 노선 모두 거리기준요금시스템 대신 균일요금시스템을 적용, 입구에서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거리기준요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에서 모두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지체가 크고 톨 부스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금수준은 노선, 차종, 쿠폰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쿠폰을 이용할 경우 대략 2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210.155.83.178/english/info/ryoukin-e.html, 2000. 9)

☎ 핸드폰 재활용 운동 전개 (뉴욕)

뉴욕시는 지난 3월부터 낡은 셀룰라폰(Cellular Telephone)을 기증 받아 유사시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셀룰라폰 재활용 운동(P.H.O.N.E.S. Initiative)」을 벌이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8,000여 개의 셀룰라폰을 기증 받아 '9-1-1'로만 통화가 가능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한 다음 폭행피해자, 노인, 재택장애인, 학교건널목 지킴이 등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시는 핸드폰 재활용 운동으로 공공안전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www.ci.nyc.ny.us/html/ccfv/html/phones.html)

공무원 대상 「反부정부패 전략」 추진 (영국 : 글래스고우市)

영국 글래스고우市는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反부패 전략’을 명문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市가 마련한 「反부정부패 전략(Anti-fraud and Anti-corruption Strategy)」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 공직생활의 7가지 행동규범, 부정부패 방지요령과 신고방법, 고소·고발 관련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市 홈페이지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상세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www.glasgow.gov.uk/html/council/fraud/antifra.htm)

시민의식·귀속감 제고 위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홍콩)

홍콩市는 주민들의 시민의식과 귀속감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市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홍콩, 우리의 고향(Hong Kong, Our Home)’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주민간 커뮤니케이션, 협동기술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모분야는 초등학생, 중등학생, 일반, 가족 등 4개 부문이며,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람에게는 장학금과 상금이 주어지고,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홍콩시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홍콩에 대한 귀속감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市는 이 공모사업이 시민들 스스로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홍콩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009/18/0918194.htm)

중 기술분야 지적재산권거래소 설립 (중국 : 成都市)

중국 서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거래소가 10월 18일 成都市에 설치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 곳은 중국 내외의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의 개척 및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중국 서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거래소의 향후 주요 추진업무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의 상품화,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표준화된 거래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쓰촨성과 서부지역의 기술혁신과 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말 上海市에 설립된 기술분야 지적재산권거래소의 경우, 회원사는 수백 개이고, 기금은 300억 위안에 달한다. 또한 북경과 심천에서도 연내에 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www.peopledaily.co.jp/j/2000/10/16/newfiles/a1180.html)